

# “모든 걸 다 바꿔” 민주당, 일대 혁신 나선다

### 재보선 결과 상관 없이 '정권 재창출 모멘텀 확보' 위해 쇄신 불가피 전당대회 통한 당 기조 변화 모색... 부동산 정책·검찰 개혁 보완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일대 혁신을 추진할 태세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 전면적인 쇄신론과 책임론이 일 것”이라면서 “당 뿐만 아니라 정부, 내각도 짝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불리한 판세를 뒤

집고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대권 가도에서 '정권 재창출' 모멘텀 확보에 이르려면 결국은 뼈를 깎는 쇄신을 거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 일단 내달 초 당대표 선출을 위한 5·9 전당대회, 김태년 원내대표 후임 선출을 위한 경선 등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지도부 교체 과정을 통해 당 운영

기조에 변화를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거센 '정권 심판론' 정서를 불러온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강경 일변도였던 '검찰개혁' 추진 기조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승가도를 달리다 처음으로 겪는 패배라는 점에서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전을 치르며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를 막지 못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성론'이 팽배해진 만큼, 향후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전면 쇄신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당정도 이미 부동산 정책 기조에 뚜렷한 견해차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차기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임기 말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설 여지가 상당하다. 당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일색인 여권의 인사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뒷받침돼 당의 혁신 노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패배 시 당내 위기감이 커지며 친문 주류를 중심으로 세 결집이 강화되고, 이들이 먼저 강경한 개혁 추진을 주도하려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문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많은 성과를 냈는데, 반성과 사과가 자기부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질서 있는 수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전주 글로벌금융관 준공식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글로벌금융관 전다광장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금융관 준공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권 레이스 시동 ... 잠룡들 심호흡

### 재보선 결과 파급력 ... 이재명·이낙연, 윤석열·안철수 합수관계 복잡

4·7 재보궐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여야의 대선 레이스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을 향한 여야의 경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다면 강고한 지지층의 힘을 재차 확인하며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내 제3후보군이 뛰어든 공간도 넓어져, '굴리기'를 노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쟁 구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반면 패배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 등이 불거지면 서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대권주자 중에서는 우선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가 더 공고해질 공산이 크다. 혼란 수습 과정에서 '경선 연기론' 등을 뇌관으로 수면 아래 잠재된 당내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재보선 승패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안

철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변수로 포함되는 한층 복잡한 합수관계가 펼쳐진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압승한다면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재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당 지도부가 안 대표나 윤 전 총장의 입당까지 염두에 둔 '원샷'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미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에 더해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복당해 이 레이스에 뛰어드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둔다면 또다시 안 대표나 윤 전 총장 측이 통합 대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국민의힘이 패한다면 연패의 충격으로 또 다시 난파 상태에 빠져들면서 대선 레이스로의 전환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히 당 대표를 선출할 수는 있겠지만, 안 대표나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영향력을 키울 공산이 크기 때문에 원시력 제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 정 총리, 사퇴 앞 전복행

### 국민연금 기금관 준공식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금융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정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점쳐지는 시점에 여권의 뒷받침 호남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날 일정은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전북 진안 출신인 정 총리가 대권 출마 공식화에 앞서 고향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 총리는 행사에서 “고향에 오니 참 좋다”며 “포근한 봄 햇볕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새 청사로 이전해 자산운용의 메카로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며 “전북혁신도시 역시 힘찬 도약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금본부 전복 이전을 위해 노력했던 제가 그 결실의 자리에 함께해 감개무량하다”며 “(이런 노력에) 국제금융도시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도 도민들의 꿈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윤영덕, 국회 결산심사 미조치 사항 보고 의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7일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회 결산 시정 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치미완료 비율이 2017회 계연도 12.9%, 2018회계연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치미완료 비율 또한 평균 12.12%에 달한다.

### 소병철, 순천보건소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순천시지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7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허석 순천시장 등과 함께 순천보건소를 찾아 긴급상황 점검을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했고, 전남 도의원·시의원과 함께 순천교육청을 긴급 방문해 학교 방역대책과 원격수업 충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 의원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학력격차가 생기면 안 된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끊김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선망을 지원 할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방역을



위해 환풍기투수를 사용하는 데 세균을 죽일 만큼 강력한 티슈를 아이들이 잘못해서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앞으로도 분야별, 업종별로 촘촘히 나눠 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신정훈 “나주·화순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242억 투입”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에 나주시와 화순군 3개 지구가 선정돼 총 242억 규모의 국비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나주시 동강면 월송지구는 사업비 122억원을 투입하고, 화순군 도곡면 덕곡지구는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 신구축지구로 선정된 나주시 산포면 내기지구는 올해 현황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2년 착공해



2025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상습침수농경지에 저류지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해 집중 호우 시 농작물의 침수피해와 농지의 토사유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신 의원은 지난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동강 월송지구 등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농식품부 등에 배수개선 사업을 건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24시간 상담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중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서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중개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